

73  
니너  
2013 여름호

<b>4</b>	<b>기획특집 : 더불어 살기의 조건</b>
5	살림의료생협 이야기_건강은 건강한 관계다
9	사람과 나눔이 있는 공간 '재미난카페'
14	집을 찾아서_공동주택과 할머니와 동네우물과 김치통
<b>20</b>	<b>삶의 돌보기</b>
20	영화 <왕자가 된 소녀들> 관람기: "6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난 아마도 혈서 전문가"
24	조용하고 산세가 고운 밀양에서 보낸 1박 2일
<b>28</b>	<b>만나고 싶었습니다</b>
29	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조력하는 열정가: 본 상담소 이사장 최보원
33	속 깊은 타로 리더: 여성주의 상담가 라다
<b>38</b>	<b>문득 떠오른 질문</b>
38	갑작스런 임신, 어떡하죠?
<b>43</b>	<b>열린터 이야기</b>
43	열린터 24시
46	열린터 다이어리
<b>48</b>	<b>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b>
48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초여름 상담활동가 엠티
<b>52</b>	<b>상담소의 밥상</b>
52	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
<b>56</b>	<b>웬대! 상담소</b>
<b>58</b>	<b>나눔과 참여</b>
58	NGO의 든든한 파트너, 비영리 공익 재단
<b>62</b>	<b>훈훈한 기부</b>
<b>63</b>	<b>아낌없이 주는 나무</b>



## 더불어 살기의 조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일상화된 경기침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흐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현실을 문제제기하며 경쟁이나 이윤 추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 삶에 대한 탐색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꾸어 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들은  
앞으로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나눔터 기획특집에서는 더불어 살아가기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데조로님은 건강한 삶,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살림의료생협의 활동을, 봄님  
은 마을 주민들의 관계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삼각산재미난마을의 재미난카페 이야기를, 전수경  
님은 공동 주택 짓기 경험을 들려줍니다.

세 여성이 나누어 주는 경험과 지혜가  
더불어 살기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과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 건강은 건강한 관계다

〈살림의료생협 이야기〉

박은지(데조로) | 살림의료생협 운동처방사

### 살림의료생협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삶의 과정이자 목표인데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변에 믿을만한 병원도 없는데다가 좋은 먹거리로 식생활을 고  
쳐보거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계속하기 쉽지 않고요. 잠시 여행  
가 있는 동안 고양이 밥을 챙겨줄 이웃도 마땅히 없고, 그냥 수박 하나 먹고 싶어도  
나눠 먹을 수 없어 포기하게 돼요.

이런 생활상의 자잘하지만 중요한 필요들을 협동으로 해결해보기 위해, 평등 평화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협동하는 사람, 건강한  
삶,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아 탄  
생한 것이 바로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살림)'입니다.

살림은 2009년 〈여성주의의료생협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건  
강마을 살림이〉를 설립하고, 발기인 대회를 거쳐 2012년 2월에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첫 사업소인 〈우리마을 주치의 살림의원(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원하였고, 올  
7월 조합원 공간인 〈우리마을 건강활력소 다짐(이하 다짐)〉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  
에 열중하고 있어요.

###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난 4월 21일, 살림의 조합원 공간을 만들자고 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는지 워크숍 형식의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40여명의 조합원들을 다섯 모둠으로 나눠 건강곡선 그리기로 각자의 삶을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짚어보고, 어떤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 공간을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어요.

‘학교 다닐 때 똥똥해서 놀림을 받아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죠,’ ‘얼마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요,’ ‘살림에 가입하고 좋은 이웃들도 만나고, 동네에 여러 행사들이 많아 지루할 틈이 없어요,’ ‘모아둔 돈이 없어서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무서워요.’ 등 등 건강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보니 ‘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돌보는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죠. 특히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이 사는 이웃과 서로 돌봄의 관계를 맺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30대 비혼인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잦은 이사, 낮은 경제수준, 주거-일터의 분리로 집은 그저 잠을 자거나 택배를 받는 곳, 동네란 언제든 이사할 때가 되면 떠나는 곳으로만 생각해왔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면 누가 날 돌봐주지?’와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했

어요. 이처럼 도시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상황에서는 인간관계가 거의 없이 이방인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도시주민들은 단지 가까이 살고 있다는 점 외에는 그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주의, 가족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비혼-여성-퀴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림은 기혼/비

혼의 경계, 세대 간 경계, 문화적 이질성의 경계 속에서 살아온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접촉점을 제공하고, 이 속에서 서로 배우면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다짐(다-Gym)>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준비 중입니다.

\* 이 부분은 살림의료생협 임직원 워크숍에서 발표된 전희경(2013)의 발제문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여성주의 의료란 무엇일까?>를 참조 및 인용하였습니다.

### ‘기계’가 아닌 ‘관계’로 건강해지는 공간, 다짐

올 7월에 개관하는 살림의 조합원 공간인 ‘다짐’은 ‘다지다’, ‘결심하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집(gym)’, ‘우리 모두 다의 집(gy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짐에는 조합 사무실과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이 와서 쉬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부엌과 베란다가 딸린 방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룹 운동이나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는 운동 공간 겸 대교육장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의료생협의 가치를 담은 다짐은 생활 속 협동이 일어나는 도시형 마을회관이자 여럿이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온몸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운동센터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공간에 운동센터가 들어선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규칙적인 운동은 올바른 식생활과 더불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역동적이거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감과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여럿이 하는 운동은 새로운 동지를 만나게 해주며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살림에서 벌써 4기까지 진행된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은 이것의 좋은 예입니다.

‘건강실천단’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주치의 상담, 체력검사 후 현미채식, 만보걷기와 운동처방으로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8



주간 단원들은 함께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채식이지만 다른 단원들도 힘겹게 채식을 실천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어찌 다 고기와 술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생활나눔 시간에 고백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단원들로부터 다시 잘 해보자는 격려와 용기를 받게 되지요. 운동 역시 혼자 하면 '이만하면 됐다'며 금방 포기하게 되지만 여럿이 한다면 옆에서 같이 땀을 흘리는 동지들의 에너지를 받아 때로 고통스러워도 목표한 운동량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구도, 뛰어난 시설의 휘트니스 센터도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세워주는 그룹운동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관계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 조금씩 넓어지고, 정교해지는 몸의 움직임은 자신감을 주고, 이것은 다시 움직임의 범위만큼 마음의 범위도 확장시켜 줍니다.

혼자서 건강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다니는 길과 만나는 사람이 나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하고요. 새로 탄생하는 살림의 다짐도 이런 믿음을 싹틔울 수 있는 건강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데조로 '운동으로 운동하자'를 좌우명으로 친구들과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파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람과 나눔이 있는 공간 '재미난카페'

봄(이선영) | 재미난카페 매니저 겸 운영위원장

강북구 수유동, 삼각산 밑에 웅기종기 자리하고 있는 삼각산재미난마을은 앓과 삶이 하나 되는, 배움과 나눔이 함께하는 재미난 사람들이 모인 마을공동체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시작해서 재미난학교로 이어졌고, 배움터, 재미난카페, 목공소 등 여러 공간들이 모여 지금의 재미난마을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재미난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강북구에 살지 않는다. 내 기억에는 살면서 강북구에 온 적도 없는 것 같다. 그런 내가 재미난마을을 알게 된 건 재미난카페에서 진행된 타로수업을 통해서였다. 타로수업을 듣기위해 재미난카페의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이어진 인연이 카페의 매니저로까지 이어졌다.

3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여행이라 즐기며 1년이나 할 수 있었던 건 재미난카페가, 재미난마을이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오늘 그 매력을 이야기 해보려 한다.

### 재미난카페가 된 이야기

2009년 봄, 마을주민을 위한 친환경 밥상 '재미난 밥상'이 세워졌다. 2011년, 밥상은 재미난마을법인에 인수되었고 밥상이 있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웠던 주민들이 삼삼오오 힘을 모아 밥상공간을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인 '재미난카페'로 재탄생시켰다. 주민들이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카페의 구석구석 주민들의 손



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마을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재미난카페에는 사장이 없다. 재미난카페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1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카페를 지키고, 주문을 받고 카페를 관리한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총6명으로 운영 위원회가 구성되어, 카페의 대외활동, 홍보, 유지보수등 전반적인 카페 업무를 함께 해나가고 있다.

카페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책 또한 카페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다른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집에 있는 자신의 책꽂이에서 꺼내온 것이다. 한 칸에 한 명씩 각자 책꽂이마다 주인들이 있고, 각자 책장은 그 주인이 관리한다.

매니저가 없는 시간대에는 자원봉사자가 카페를 관리하고 손님을 받기 때문에 여느 카페처럼 만들기 어려운 에스프레소머신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가는 좀 비싸지만 만들기 쉬운 캡슐커피를 이용해 커피를 만든다. 손님으로 온 사람들도 직접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되어있다. 직접 만들어 먹고 직접 계산을 하고 직접 뒷정리까지 해놓고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곳의 수익분배는 어떻게 하냐고 종종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나는 수

익들은 모두 다시 카페로, 마을로 돌아간다. 애초에 수익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만 나온다. 조금의 여유의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도록 카페의 시설을 보수하고 확충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카페에 처음 오는 손님들이 항상 “여기가 뭐하는 곳이에요?”하고 묻는다. 카페라고 쓰인 큰 간판이 있는데도 가정집 같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카페에서는 차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으며, 술도 마실 수 있고, 아이들이 와서 간식을 먹을 수도 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책을 같이 읽을 수도 있고, 바느질을 할 수도 있고, 꿈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숙박도 할 수 있다.

‘카페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찾기 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찾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카페의 공간은 누구를 위해서든 열려있고,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곳이 재미난카페가 아닐까 싶다.

이곳의 이름이 ‘재미난’카페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는 재미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누군가 주도해서 재미난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재미있는 일을 하면 또 그것을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함께해서 커지는 식이다. 그리고 그 재미난 일을 하는 공간으로 재미난카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 마을의 문화 사랑방

재미난카페는 마을의 문화 사랑방이다. 타로, 꿈집단, 북아트 등 여러 강의가 진행되는 공간이고, 아이들이 다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으로 그려서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강의나 모임들이 커져서 카페에서 독립해 나가거나, 수강생들 끼리 모여 카페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재미난카페가 일종의 아지트가 되고 집결지가 된다.

또한 매년 4번 주민들끼리 카페에 모여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카페 자체

에서 마련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카페데이'라고 한다. 주민들끼리 카페에 모여 영화 관람,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 관람, 혹은 그때 그 시절의 문화를 회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네 번의 카페데이는 항상 다른 콘셉트로 진행된다.

### 아이들의 또 다른 놀이터

아이들과 함께 가기 힘든 다른 카페들과 달리 재미난카페는 아이들을 환영한다. 카페 한 쪽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동화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매일 다른 메뉴로 간식을 준비한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미리 구입해 놓은 쿠폰으로 간식을 사먹고 다 먹으면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으로 간다. 그 시간동안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책을 읽으며 보낸다.

또한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와서 아이들은 작은방에, 부모님들은 또 다른 공간에서 모임을 진행한다. 온돌방으로 되어있는 카페에서는 신발을 벗고 누워서 놀 수도 있고 데굴데굴 굴러다니면서 놀기도 한다. 굳이 모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이와 함께 카페에 놀러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

삼각산재미난마을의 사람이 된지 1년이 넘었지만 나는 아직도 강북구로 이사를 가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삼각산재미난마을의 주민이다. 사는 지역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 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곳에는 주거지역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카페의 역할이 큰 것 같다. 마을 공동체에 대해 하나도 몰랐던 내가 마을 주민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재미난카페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 또한 카페를 통해 마을을 접하고는 한다.

카페가 마을에 존재함으로써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 주는 위안을 얻는다. 일단 나부터 많은 위안을 얻는다. 어딘가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 곳에 가면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

마을 주민들은 카페에 들러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고, 자

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도 한다. 만약 카페가 없었더라면 이들은 어느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서울을 동경했었다. 이웃집 손가락 개수 까지 다 아는 시골과는 다르게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서울이란 곳은 정말 좋은 곳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서울에서 살다보니 나눔이 없는 것의 무서움을 알 수 있었다. 당장 옆집에서 누군가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도시. 하지만 재미난카페에는 적당한 프라이버시와 적당한 나눔이 공존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 봄/이선영 긴 동면을 끝낼 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만나 지금의 봄이 된 '봄'이에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봄'을 나누기 위해 이것저것 공부하고, 내 안에 사랑을 키우는 중이에요.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  
할머니와  
동네우물과  
김치통**  
〈집을 찾아서〉

전수경

“여기 아파트가 있다는데 안 보이네” 점심 먹으러 가는 길, 할머니 한분이 길을 묻습니다.

“아파트 이름 아세요?” “아파트가 뭘 이름이 있어, 사람 사는 데가 아파트지”

틀린 말썸은 아닌데, ‘OO 뷰’니 ‘○○ 힐’이니 이름을 알아야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운 날 도시 한 복판, 할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손자들이 집에 오면 미닫이 문 여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내밀고는 하셨습니다. 쪽진 흰머리 간수하기가 어려워 아흔이 다 되었을 때 할머니는 머리를 자르셨죠. 작아진 몸, 마디 굵은 손가락과 함께 쪼글쪼글 말간 애기 얼굴 같은 할머니 얼굴이 나타납니다. 미닫이 문소리는 해가 갈수록 느려지더니 그 방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면 할머니 계시던 방에서 제가 잡니다. 드르륵 드르륵 미닫이문 도르래가 천천히 구르고 ‘수경이냐’ 하던 할머니, 가끔은 많이 보고 싶어집니다.

요즘은 벽에 평면 TV가 붙어있고 긴 소파가 있는 각진 공간이 집의 이미지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것이 집이냐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집은 기억이 깃들고 시간이 베를 짜는 기억의 역사관입니다. 제가 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건 해당화꽃 붉은 빛, 깊은 우물과 감나무, 불을 때던 할머니 옆에 쪼그리

고 앉던 아궁이, 방학이 끝나가서 쓸쓸하던 여름날 오후 마당가의 빗물자국, 젊은 아버지의 잘 생긴 스텡 세숫대야, 집으로 들어오는 발두렁길,…. 시골이기에 도시에서 태어난 분들과 추억이 많이 다르겠죠. 지금은 콘크리트에 묻혀 더 이상 가 볼 수 없는 집이 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서는 선명해지는 게 이상합니다. 앗, 원래 애기로 돌아와야 겠습니다.

집은 브랜드, 시공법, 편의성, 자산 가치로 남지는 않겠죠. 돈, 물성보다 아우라라고 부르는 것, 그 집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집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난해 겨울, 공동주택을 함께 지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동네광고를 보자마자 며칠 궁리하다가 냉큼 찾아갔습니다. 전셋집 구하고 기간 다 되면 연장하거나 다시 전셋집을 구하는 것 말고는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저인데 집을 짓겠다고 쉽게도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마을에 먼저 들어선 공동주택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은 5층짜리 평범한 빌라인데 담백하고 담담한 분위기에 집장사가 지은 집에서 풍기는 느끼함, 과대포장, 저렴한데 비싸게 보이려는 허영심 같은 것들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일층 현관부터 옥상, 계단, 공용공간까지 내 집은 한 칸이지만 주택 전체가 내 집이기도 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때 알게 되었죠. 내 집이 작아도 공간이 확장되는 경험, 내 식구만 거두는 집이 아니라 옆집 윗집 아랫집이 서로 거두고 드나드는, 의식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유년의 집과 동네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느닷없이 깨달았습니다.

우선 돈은? 서울시내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기에 집값이 아파트값보다는 많이 싸지만 전세 살던 돈으로는 어렵도 없는 큰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세값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전세대출이라는 게 끼어있는 형편이고요, 공동주택 입주할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공식 대출과 가족친지에게 빌리는 비공식 대출로 조달하는 형편입니다.

한집 두집 공동주택을 같이 짓겠다는 입주자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 하나로 이루어진 3인 가족이 가장 많고, 비혼 1인가구도 있고, 아이가 둘인 저희 집이





지난해 겨울, 집을 올리기 앞서 고사를 지냈어요.

제일 인구가 많은 집이 되었습니다. 마을과 인근에 원래 살던 분들이 세집, 공동주택에 살고 싶어 멀리서 이사 오는 집이 다섯 집입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집을 짓고 살아보겠다고 오는 것이니 대답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먼저 집을 지을 땅을 물색하고 구입하는 절차부터 시공, 이후 관리까지 입주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을 짓는 동네기업과 시공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입주자들은 집을 보는 관점,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생각하는 공용공간 등에 대해 교육도 받고 토론하고 엠티도 가면서 친해지고 이야기 나누고, 더 친해지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두 바퀴로 공동주택 건축이 굴러가는데요. 내 집 설계를 하면서 꿈꾸던 다락방도 배치해보고 불가능해 보이는 빛마루도 그려봅니다. 시공사의 전문적인 조언과 개입을 거치면서 가능한 것은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꿈으로 남습니다. 도시에 서 좁은 터를 사서 8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기에 집 평수는 어떤 크기를 상상하든 그 이하로 작습니다.

또 다른 바퀴는 공용공간 -마을회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용현관, 주차장, 계단, 옥상 등 내 집이면서 모두의 집이 될 공간에 대한 토론과, 집짓기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입주자들 모두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공용공간에 대한 꿈이 있고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좁혀가는 것이 공동주택 건축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동네 청소년들 프로젝트의 숙박시설로 하루 이틀 내 줄 수도 있는 열린 쓰임새를 생각합니다. 물론 밤이면 입주자들이 모여 하루단이를 하면서 맥주 한잔, 기타연주에 노래 한 소절 오가고, 반찬 하나씩 들고 모여 저녁밥을

같이 먹는 건 기본이겠지요.

집터를 샀을 때 당연하게도 거기엔 집이 있었습니다. 반듯한 이층집에 마당이 정갈한, 늙은 부부가 곱게 가꾼 집이었습니다. 집을 허물기 전 우리들은 그 집에서 하루를 잤습니다. 집에게 미안한 마음, 그 집에 살던 사람들에 고마운 마음, 이 터에 들어설 공동주택이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이별식을 치렀습니다. 돈으로 오가는 관계라 해서 마음을 지우는 것보다 정성을 다해 할 도리를 하는 것, 빈집에서 잘 때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 짓는 과정이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웃으면 대화하는 물밑에는 엄청난 각축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가격, 자재, 공법, 기한, 일의 순서 등에 대한 무한 전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투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주로 일어나지만, 입주자와 입주자 사이에도 일어나고 한 가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화장실을 설계할 때 저는 색깔에는 민감한 편이지만 가격, 공법 등에는 도통 관심이 가지 않고 시공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번기기능, 조명위치, 타일재질 등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여 시공사에 얘기합니다. 건축과정에서 입주자의 성격, 가치관, 삶의 태도가 묻어납니다. 집이 곧 사는 사람의 개성을 응집해 보여주는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공과정에 최대한 관여하여 내가 원하는 집의 물성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긴장이 생깁니다. 고객으로서 소비자로서 요구할 수 있고, 내 집이 상품가치가 높아지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집을 짓든 집장사가 지은 집이 아닌 개인주택, 공동주택을 선택한다면 한번은 맞닥뜨릴 긴장입니다.

우리는 이 긴장이 낫습니다.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령 저는 '집을 상품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집 짓도 짓도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공동주택 한다' 하고 말한다면 수궁할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운동은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선택



집 밖의 모든 이들과 우정과 환대를 꿈꾸며 우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는 것에 붙이기에는 부조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큰돈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이나 귀농 같은 프로젝트가 아닌 내 집을 짓는 일에 사회운동이라 ...

그래도 저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 작은 균열을 갖고 오는 일에 흥분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내 집 짓는 일이 집도 생기고 사회운동도 되니 아름답지 아니

한가요. 물론 대출금 갚아야 하는 자, 채무자로서의 정체성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생기면 보수주의 보신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못 가진, 없는 곳에 대한 관심은 관심으로만 밀어놓고, 내 거 지키는 게 급해지게 됩니다. 공동주택에 살면 좀 덜 할까요. 덜 하도록 노력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사회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저 돈 있어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TV프로그램에서 공동주택 취재한다기에 추억이라도 될까 싶어서 수락했다가, 막상 방송이 나간 후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아들 교육 때문에 공동주택 선택한 것처럼 비취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하우징, 공동주택, 마을, 커뮤니티, 공동체... 로 의미를 덧입기 전에, 멋진 이름으로 집과 마을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유일하고 소중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집은, 땅덩이 전체가 빠르게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집은 돈을 빨아들이고 내뱉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집이 화폐로 바뀌는데 사람이 걸림돌이 되면 사람을 치워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참 염치가 없습니다. 옥탑, 반지하, 지하, 쪽방, 비닐하우스에 사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해도 미안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냉장고가 생기기 전 풍경입니다. 동네 우물가에 가면 빨간 노끈에 집집마다 김치통을 매달아 우물에 담가 놓습니다. 밥 때면 우물까지 달려가서 김치를 펴오고는 했습니다. 남의 집 김치통 열어서 맛도 보고요. 김치통을 매달아놓은 동네 우물은 우리 집이었습니까.

네 우리 집이었습니까. 집을 떠올리면 동네우물 빨간 바가지와 달달 시원하던 물맛도 떠오르니까요. 제 기억 속에 스뎡 그릇 들고 우물까지 뛰던 여름날이 있습니다.

참, 집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큼직하게 던져주고 딱딱하게 굳은 머리를 시원하게 마사지해주는 이일훈 건축가의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전수경 일하는 사람, 일 하기 싫은 사람, 공부 좋아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데 돈 없는 사람, 서로를 얹매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 영화 <왕자가 된 소녀들> 관람기 “6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난 아마도 혈서 전문가”

미쓰제이 | 대학 강사

**‘그녀’가 내 마음에 처음 들어온 그 날,**

*아동극 ‘피터팬’ 극의 내용이 기억에 없는 걸 봐서 그냥 그런 아동극이  
었으리라. 극이 끝난 후 우연히 분장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극 중에서  
남자였던 주인공 ‘피터팬’이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이었고 나는 브라 차  
림의 ‘그녀’를 보게 되었다. [슬로모션] 그는 무안한 듯 옷을 스윽 입었  
고, 머리를 스스-스- 정리하고, 나를 보고 씨이익 웃었다.*

주인공의 미소가 강렬하게 내 가슴에 꽂힌 그 찰나의 순간 이후 나는, 나를 매혹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무대 위의 중성적인 여자, 그들의 목소리  
와 몸짓, 때론 기타를 든, 때론 마이크를 잡은. 그리고 쪽, 그러니까 대략 25년 이상,  
그 여인들의 매력에 빠져 지내고 있다. Mel C, Melissa Etheridge, Ani DiFranco, Otep,  
Skin, 최근의 엠버까지. 물론, 결국 같은 장르라고 생각하는 카운트테너의 목소리에도  
매혹되었고, ‘마지막 카스트라토’라 불린 모레스키의 음반은 이미 여고생 시절 일본에  
서 공수해 소장했다. 그들의 비밀, 역사, 사생활을 하나라도 더 알아보겠다고 ‘빨래집  
게 놓고 A자 알딘 시절부터 영어 잡지를 뒤적이고 월드와이드 팬 페이지를 기웃거리  
는 것이 오랜 시간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 열정이 조금만 더 컸다면, 혹은 그 열정  
이 누군가의 열정과 만나 동반상승 효과를 발휘했더라면, 나는 아마도 가출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영화 <왕자가 된 소녀들>을 보고 확신했다.

## 영화 <왕자가 된 소녀들 (The Girl Prince)>

<왕자가 된 소녀들>은 1950년대에 인기몰이  
를 한 여성들만의 창극, 여성국극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할머니들의 기억 속이나 아스라  
이 남아있는 장르라 생각했던 여성국극이 아  
직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당대에 이름을  
날린 배우들이 여전히 생존해 무대에 오른다  
는 사실을 알려준 놀라운 영화이다. ‘여성들  
만의 창극’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극중의 남자  
역할도 모두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면에서 여  
성국극에서는 남자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특  
별히 더 주목받는 것 같다. 박력 있는 목소리  
로 왕자 혹은 장군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기  
실 ‘여자’라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준 것 같으며, ‘나 같은’ 사람들을 매료시  
켰을 것이다.



‘왕자가 된 소녀’라니! 지인으로부터 영화의 제목을 처음 소개받는 순간, 나는 이 영  
화가 ‘내 장르’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영화를 세 번 보았다. 처음 영화를 보았을 때는  
귀신같이 이옥천 선생님만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 조끼를 입고 병풍 앞에서 이  
이야기하시는 선생님 모습에서 스크린을 뚫고나오는 ‘오라(aura)’를 함께 보았다. 도포자  
락 휘날리며 적벽가의 한 대목을 하시던 모습에선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집에 와서 네이버에 올라 있는 이옥천 선생님의 ‘홍겨운 민요 메들리 40’을 반복 재생  
하다 지쳐 다음 상영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된 영화.

이옥천 선생님을 보러 갔는데, 조금앵 선생님, 허숙자 선생님, 김혜리 선생님의 재  
담에 매료되었다. (카메라 앞이었을 텐데) 어쩌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쇼맨(showman)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명장면들

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앵 선생님이 자신이 얼마나 남자 연기를 잘 했는지, 박력 있는 남자 연기란 어떤 것인지 설명하던 장면, 허숙자 선생님이 혈서를 보내던 당시의 가열된 팬들의 열기를 설명하던 장면, 김혜리 선생님이 여성국극의 전성기에 명성을 얻고 돈도 번 사람들이 여성국극이 쇠퇴기를 맞이하자 여성국극에서의 경력은 숨겼던 것을 설명하며 “가소롭지!”라고 내뱉으신 장면 등. 이 같은 강렬한 장면들이 지하철을 타고가다 문득, 책을 읽다 문득, 문득 문득 떠올랐고 영화를 다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앵 선생님이 지하철을 타시던 장면은 그래서 어떻게 이어졌지? 신부귀 선생님들은 전성기를 어떤 표정으로 설명하셨지?

그런데 세 번째로 영화를 보니 배우 선생님들 뿐 아니라 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분명 수줍은 표정으로 “우리는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한테 이런 언니가 있는데 괜찮냐, 물어보고 결혼했어요. 호호호”라며 팬의 자격으로 인터뷰 하셨던 분인데 무대 뒤에서 선생님들에게 분칠을 해 주고 계신다. “아유, 시부모님 밥 차려 드리고 공연 보러 나다녔죠.”라고 볼을 붉히던 분이 국극보존회 신년회에서 걸걸한 목소리로 “자, 건배!”를 외치고 계신다. 그나마 여성국극의 명맥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 덕이란 생각이 들었다. 늘 음식이 넘쳐나던 뒤풀이 자리는 팬들의 한나절 동안의 땀방울로 가능했던 것이리라.

석유로 화장을 지우던 시절, 시커먼 가제 수건을 뽀얗게 빨아다준 팬들이 있었음에 전성기가 가능했을 테니 팬들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 여배우들에게 매혹되었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살았을지, 배우가 되어 무대 위에 서고 싶었던 적은 없는지, 이 여자들과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교 다닐 나이도 있고, 시집갈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한 평생을 함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배우와 팬으로 관계를 이어갔다니. 또 다시 큰 박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들일 텐데, 다음 네 번째로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아마 영화 속에 등장한 오랜 국극 팬들이 영화관을 방문하는 날이 아닐까. 이 분들의 열정에, 인생에 꼭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다.

영화 <왕자가 된 소녀들>은 인디플러스, 아리랑시네센터, 쇼타임즈 등 극장 상영을 거쳐 6월 27일에는 광주 극장에서도 개봉한다. 인디플러그(indieplug.net)의 웹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만나볼 수도 있다. 여러 종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테지만 특히 여자스타의 여팬이었음에 숭고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이 영화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내 생각에 이 영화는 팬질의 역사교과서이다.

## 조용하고 산세가 고운 밀양에서 보낸 1박 2일

란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작년 1월, 70대 노인이 분신했다. 70대 노인은 2005년부터 낮밤 가리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맨몸으로 송전탑을 만들려는 중장비를 막아섰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중장비를 막아서자 20대 초반 손자 벌되는 용역들이 나타나 입에 담기도 험한 욕설을 하며 욱박지르기 시작했다. 맨몸으로 막아서는 6~70대 노인들에게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용역들이 내일 또 오겠다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사라진 그날 밤, 70대 노인은 스스로 몸에 기름을 부었다. 스스로 목숨을 내버린 고 이치우 할아버지의 분신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는 좀 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밀양에 한번은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누르는 스위치를 통해 언제나 들어오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난달 갑자기 재개된 밀양 송전탑 공사 때문에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까지 보고나서는 더욱 그랬다.

### 밀양이 소란스러워진 이유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대도시에 공급되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신고리원전에서 경남창녕군에 있는 북경남 변전소까지 송전탑 161기를 통해 전력이 수송된다. 계획대로라면 밀양에만 평균 높이

100m의 송전탑 69기를 500~600m 간격으로 세워 765kV 초고압 송전선을 이용해 전기를 이동시키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이번 겨울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빨리 재개해야할 것 같다. 전력 예비율이 위험수준에 도달되기 전에, 느닷없이 정전이 되기 전에, 에어컨, 선풍기, 히터가 멈추기 전에 내가 사는 이곳까지 전기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이곳까지 공급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폐허로 변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나와 전혀 무관하다거나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사라진다.

### 지금 밀양으로 떠나는 버스를 타라

같이 사는 메이트가 속한 공동체에서 밀양에 1박2일로 농촌활동을 하러 떠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밀양대책위가 공사중단에 합의한 40일간 밀린 농사일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밀양으로 가고 있었다. 왕복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제외하면 1박 2일 동안 농사일을 얼마나 할까 싶은 정도로 적은 시간의 농촌활동이었지만 밀양으로 떠나는 버스라도 타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기 힘들 것 같았다.

토요일 오전 7시 사당에서 출발한 버스는 오후 1시쯤 밀양에 도착했다. 밀양역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2개조로 나뉘어 밀린 농사일에 손이 필요한 마을로 떠났는데, 내가 속한 조가 하게 된 농사일은 백문동 밭 잡초 뽑기였다. 백문동은 한방에서는 약초로 쓰이고 최근에는 잔디 대신에 조경용으로 쓰이는 풀로 일교차가 극명한 밀양에서 가장 질이 좋은 백문동이 생산된다고 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송전탑 반대 투쟁으로 백문동 밭은 백문동과 잡초가 한데 뒤엉켜 처음에는 잡초와 백문동이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6~7명의 사람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꼬박 일했지만 백문동 밭의 절반 정도도 사람손이 닿지 못했다. 사람 손이 필요한 시기에 한해 농사를 방치할 정도로 송전탑 반대투쟁은 밀양 주민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 끝나지 않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리고 밀양

조용하고 산세가 고운 밀양에는 물이 참 맑았다. 물이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풍광 좋은 시골마을이 누군가에게는 핵발전소를 기반으로 원거리에서 대량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길목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까지 핵발전소는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여겨졌다. 큰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만들었다.

내가 만난 밀양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핵발전소가 뭔지 모르고, 원거리 대량수송의 전력정책이 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그 분들은 단지 당신이 태어나서 평생 살아온 곳에서 그저 살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7년을 싸워 왔다. 더 나아진다는 문명의 진보보다는 지금도 충분하니 지금처럼만 살게 해 달라는 외침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단 1초도 전기가 지나가는 폭력의 길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온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전기 스위치 꺾꺾 눌러대는 손가락이 1박 2일 동안 너무도 부끄러웠다.

### 오늘 밀양행 기차를 타시라

이양숙 시인

한곳에 사람이 천만도 넘게 떼거리로 몰려 살 때부터  
내 알아봤다  
여름매미가 환한 밤을 낮 인줄 알고 밤새 울어대어  
잠 못 드는 서울이라 할 때부터 내 알아봤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오늘도 내 밥상머리까지 달려와  
초록별 지구가 아니라 핵의 별이라고  
피눈물로 아우성인데

단 1초도  
삶터를 짓밟개며 달려온 송전탑 길을 생각해 본 적 없는  
서울 사람들을 위해  
한 평생 논밭 일구던 밀양 할매 할배들의 삶 다 무너진다

천만 서울사람들이여  
오늘 밀양행 기차를 타시라  
단 1초도  
전기가 지나가는 국가폭력의 길을 생각해보지 않는 서울사람들이여  
그대들의 밤을 환히 밝히기 위해  
그대들의 지나친 문명생활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전기 스위치 꺾꺾 눌러대는  
그 흰 손가락들에 짓눌려  
하나뿐인 목숨 기름불에 내던진

보라마을 이치우 할매 기막힌 얘기가  
여기 밀양에 있다.

※란 환경문제와 동물권에 관심이 샘솟고 있는 1인.

# 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조력하는 열정가

본 상담소 이사장 최보원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손님은 최보원 이사장님과 여성주의 상담가 라다님입니다.

interviewer\_최지나(본 상담소 사무국장)  
interviewer\_유영(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조력하는 열정가



본 상담소 이사장 최보원

## 속 깊은 타로 리더



여성주의 상담가 라다

interviewer\_최지나 (본 상담소 사무국장)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 번째 손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보원 이사장님입니다.

최보원 이사장님은 2004년부터 이사로 활동하신 후 2012년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상담소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이사장님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Q**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회원분들에게 이사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오래된 양반마을이라 불리는 충남 공주에서 2남 5녀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외과 의사이셔서 어려서부터 의사에 대한 동경이 짝 텃죠. 제 꿈은 아버님 같은 멋진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과계열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어 어릴 때의 꿈을 실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을 진료하고 여자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픈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시면서 쌓여온 여러 경험들이 이렇게 이사장님과 상담소와의 인연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 외에 여성인권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는지 소개해주세요.



**A** 시댁 고향인 수원에서 1978년부터 산부인과를 개원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는 성폭력을 당한 어린 여자아이부터 노인할머니까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치료받기 위해 몸의 아픔과 상처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셨어요. 더군다나 정신적 고통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도 마땅히 위로받을 데가 없다고 걱정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의전화에 조금씩 후원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가정법률

상담소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2002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인연을 맺고 자문위원 일을 하다가 2009년부터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에 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주최로 수원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여자들이야말로 사회의 저변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더가 큰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겠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사회 구석진 곳을 돌보고 보듬는 봉사자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싶습니다.

**Q** 이사장님께서 2004년 이후로 계속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인연을 맺으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제 막내 동생이 가톨릭 의대 정신과 교수로 있는데,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에 관심이 큼니다. 동생을 통해서 당시 소장님이던 최영애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양재동에 있을 때였지요. 상담소를 통해 알게 된 성폭력은 제 진료실에서 몇 분씩 만나서 알게 된 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현상이었죠. 점차 성폭력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저도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

었습니다. 또 당시 최영애 소장님의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 차츰차츰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2012년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동안 어떠셨나요?

**A** 이사로 있을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 부담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이사회와 상담소 전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만 힘을 보탤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쁘게 따라갔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Q**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활동가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사장님의 경험에 비추어 상담소에서 더욱 함께하면 좋을 활동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위에서 말하는 것을 귀기울여보면, 상담소는 피해자만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당한 후에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성폭력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는 여성 착취가 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 진료소에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환자들도 옵니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업주에게 빚으로 묶인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소에서 성매매 관련 여성운동과 연계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Q** 여름이라 더욱 지치고 힘든 활동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앞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듬는 손길이 있어 우리 사회가 지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그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돕는 곳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길이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갈 때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한 가닥 밧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상담소라는 것이죠. 지금도 성폭



력으로 삶이 무너져 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하기에 상담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상담소 활동가 여러분은 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Q** 마지막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사회를 돌보는 여러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회원 여러분들,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기대하는 바와 달리 더디게 변화하는 세상에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발자국씩 나아 가다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여성들의 삶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오 이사장님의 지난 발견음등은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로서 더욱 힘을 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담소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지지와 격려보내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 속 깊은 타로 리더

여성주의 상담가 라다

interviewer\_유영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두 번째 손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자원활동가이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욕망찾기: 여성주의 타로>의 강사인 라다님입니다. 라다님으로부터 여성주의와 상담, 그리고 타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전문상담원입니다. 벌써 햇수로 5년차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서울불교대학원에서 자아초월 상담학 박사과정 중이고, 여성주의 타로 강의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상담소에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A**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다른 기관에서 받았어요. 그 교육은 당시 제가 4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다가 여성주의 상담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고민 하다가 일단 여성주의 상담을 표방하는 곳들을 찾아본 후, 교육을 받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원상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들은 적도 없는데 당연히 시작은 이곳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렸지요. ^^

**Q** 요즘 라다님의 여성주의 타로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여성주의 타로도 매력적이지만, 라다님을 만날수록 경험과 삶의 궤적, 내공이 단단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라다님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A** 그래요. 지금의 내가 과거의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는 직장생활을 아주 일찍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저에게는 여성보다 노동운동이 중요한 삶의 가치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회나 직장을 바꾸면 개개인들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고 그런 변화를 함께 만들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노동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변하면서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눈에 밝히는데 보이는 것을 외면할 수 없고 그래서 여성주의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노동조합 내에서도 제가 여성주의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시기가 왔지요. 그러다 불편해지는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엔 여성노조가 하고 싶었어요. 주류보다는 그 안에서 소외받은 사람들과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조직 내에 있으니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노동운동을 그만두기 전 1년 반 정도 비정규 투쟁을 했었는데 그때 노동조합 내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걸 보고, ‘조직 구조만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닌 건가?’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임금을 올리고 정규직을 만든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거나 훨씬 더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니 개인의 심리,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고 성장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아 그럼 나는 상담을 해보고 싶다. 나는 여성주의자니까 여성주의 상담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이어졌죠.

그런데 묘하게, 성폭력상담으로 여성주의 상담을 시작했는데도 처음에는 성폭력 상담을 주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성주의 상담이 상담에서는 소위 비주류인데 ‘비주류인 성폭력 상담을 안해야겠다’는 내 안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욕심일 뿐이지 항상 ‘그거 안해야지’ 하는 건 꼭 하게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무의식적으로 이걸 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아채고 방어한 것 같아요. 그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았던 거죠.

제가 성폭력상담을 하게 된 이유를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저도 당연히 성폭력 피

해를 많이 입었죠. 아동기 때부터 되게 많은데, 제 경험들을 사소화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담자들을 만나고 성폭력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 경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 길을 안 가려 해도 오게 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Q** 여성주의 타로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여성주의 타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A** 일대 일일호프에서 여성주의 타로를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봐주셨어요. 그 때 제가 마음이 폭 놓이고 안심이 되고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이후 제가 비정규직 투쟁에 결합하고 있었는데, 우리들 내에서 관계가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타로를 배워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타로를 읽으면서 이 도구가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엔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해 본 것이지만, 결국 타로를 배우러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타로를 하다 보니, 타로를 보러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고 타로 리더도 여성들이더라고요. 여성들과 다른 데에서 나누지 못하는 고민과 경험을 타로를 통해서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산티구루쿨 타로학과 졸업논문 주제를 고민하면서 당연히 저는 여성주의자니까 여성주의 타로로 쓰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때 무슨 타로를 할 건지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찾은 타로가 세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더피스(motherpeace) 타로예요.

기존 타로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백인 성인 남성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역할 등 가부장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 말고 모든 피부 색, 모든 계층, 모든 나이, 다양한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여성주의적인 타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1970년대, 80년대에 세계적으로 문화여성주의를 하던 그룹들이 그런 타로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저도 그 타로를 배우고 연구해서 여성들과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논문으로도 쓰게 된 거예요. 이 타로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화를 공부하고 그림을 공부하고 거기에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계속 나누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체험들을 했어요.

**Q** 질문을 약간 옮겨볼게요. 상담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여쭙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변화는 여성주의 상담의 경험에서 중요하잖아요. 라다님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A**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죠.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면접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만났던 내담자가 처음에 만났던 모습에서 많이 변화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담자뿐 아니라 저도 많이 성장했는데, 그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내담자 사례로 여성주의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기회를 가지면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꿈을 꿔요. 그 꿈에서 길고 어두운 동굴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내담자가 저를 안내해서 빠져나오게 해줬어요. 그렇게 동굴을 빠져나왔는데 제가 막 날아다녔어요. 그 꿈이 제가 그 내담자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내담자의 안내를 받아서 여성주의 상담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과 상담을 통한 성장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하는 거고, 내담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Q** 만약 여성주의 상담이나 성폭력 상담이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거나, 혹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A** 여성주의 상담 영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상담은 상담 심리 이론과 적절한 수련을 거치면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담가라고해도 여성주의 마인드가 없으면 여성주의 상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상담이 반드시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나 내담자를 이해하는 방식, 치유과정이나 방법을 모르면 상담자가 여성주의 관점을 갖고 있더라도 상담이 아니라 교육에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우리 상담소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받고 처음에 전화상담을 받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전화상담 과정이 없이 바로 면접상담을 했으면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새로이 면접상담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상담에 대해 수퍼비전을 받든지, 지속적으로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담가로서의 전문성을 같이 배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상담을 앞두고 많이 두려울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며 많이 꺼려하시잖아요. 면접상담은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을 받은 것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퍼비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상담의 기법과 관련한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멘토를 붙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노력한다면 상담원들이 더 성장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 자연스럽게 상담소에 제언을 해주셨는데요(웃음)

**A** 그러게요. 난 맨날 제언해!(웃음)

**Q** 저는 라다님이 쪽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라고도 지칭을 하시지만 우리 상담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따뜻하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소나 나눔터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활동가 분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스트레스나 노동 강도, 노동 시간이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아요.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담소가 되기 위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는 늦은 시간에 진행되어 밤 11시가 되어 끝났습니다.  
언제나 우리 상담소에 뜻 깊은 조언을 해주시는 활동가이자,  
따뜻한 타로러더 라다님께 감사드립니다.

■ 라다의 여성주의 타로 상담: [cafe.daum.net/motherpeacetarot](http://cafe.daum.net/motherpeacetarot)

## { 갑작스런 임신, 어떡하죠?

본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사  
“갑작스런 임신... 이젠 어떡하죠?(2013.07.01.)”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며칠 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임신 소식이 반갑고 기쁘기 보다는 난감하기만 해요. 얼마 전 이직을 해서 직장 생활에도 여유가 없는데다, 대출금 이자, 부모님 생활비 보조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남자친구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결혼을 결심하기도 여의치 않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From 난감이〉

**A** 난감이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출산을 할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난감이님처럼 많은 여성들이 임신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임신한 여성을 돕지 않는 사회적 조건들 때문에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성교육의 오랜 주제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후, 9개월간의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을 하게 된다는 출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성교육 시간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신과정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성교육 등을 통해 여러 번 접하지만 정작 임신과 출산이 당사자인 여성과 주변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회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나 노력, 희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임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

한 정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리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해서 임신한 경우가 아니라면, 난감이님처럼 임신을 하고 막상 내 일이 되고 나서야 출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임신 소식에 기뻐하기 전에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 예를 들어 보육 제도나 의료제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분위기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임신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현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지요. 한국사회에서 한 명의 자녀를 낳아 대학 졸업 때까지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3억89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 2013). 충분하지 않은 보육 지원제도, 높은 사교육비, 등록금 등은 현실적으로 출산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물론 기혼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투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의 시간과 자원 부족을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여성들의 엄살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이에요. 기혼여성들이 비혼 여성보다 더 많이 낙태를 하며, 1회 이상 반복적으로 낙태를 하는 비율도 기혼여성보다 더 많은 현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인가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뿐 아닙니다. 결혼제도 안에서의 임신과 출산만을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비혼 여성들은 출산을 하고 싶어도 결혼제도 밖의 임신과 출산에 쏟아지는 비난과 편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겪어야 할 어려움도 염려할 수밖에 없으며,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요. 출산을 결심한다면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 단절도 각오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라면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학업의 중단은 취업과 같은 진로와

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출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삶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결정 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인공유산은 건강상의 이유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등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법상 낙태의 죄가 고발 건수도 거의 없고 처벌도 크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사문화된 법'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엄연히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출산을 원치 않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은 범죄자가 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대로 해주는 병원도 찾기 쉽지 않으며, 현금거래를 요구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술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관련 시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위험을 임신한 여성 개인이 모두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난감이님도 출산을 한다는 것, 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몸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선의 결정은 무엇이고 그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검토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ES! 출산을 하고 싶다면**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나요?
- 임신과 출산과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나요?
-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자원(돈, 집, 시간 등) 이 충분한가요?
- 양육을 함께 할 파트너 (애인, 남편, 친구, 부모님 등) 가 있나요?
-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파트너 등)이 나의 선택을 지지하나요?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도 감수할 수 있나요?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출산하겠다는 나의 결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의지가 있나요?
- (비혼의 경우) 비혼모와 한부모가족 아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감수할 수 있나요?
- 학교에 보육시설이 있나요?

- 임신, 출산,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데 출산과 양육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혹시 나의 결정이 '모성을 가진 여성이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거나, '낙태는 범죄'라고 말하는 사회규범 때문은 아닌가요?
-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충분한가요?
- 출산을 결정하더라도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입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입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나요?
- 출산을 하겠다는 나의 결정이 나의 삶 전반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나요?

**No! 출산을 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는 아래 모자보건법 14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나의 경우는 어떤가요?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가 아닐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나요?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나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충분히 알고 있나요?
-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파트너 등)이 나의 결정을 지지 하나요?
-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출산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의지가 있나요?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도 감수할 수 있나요?
-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정이 나의 삶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나요?

**출산 여부는 삶과 미래에 대한 결정, 스스로의 선택이 중요해요**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다보니 출산을 하고 싶은 여성도, 하고 싶지 않은 여성도 선택과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언제 누구와 아이를 몇이나 출산할 것인지,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가끔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하는 아이를 낳아 유기했다는 여성들의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도 낳지 않을 수도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감이님께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난감이님 자신의 몸과 삶에 미칠 영향과 미래의 계획입니다. 어렵겠지만 난감이님의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자원을 냉정히 따져보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몸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감이님이 스스로 출산 여부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변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난감이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충분히 숙고하여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난감이님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요구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지요. 우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또는 결혼제도 밖 출산 등의 이유로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충분한 보육시설과 비용지원 등 현실적인 보육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미혼모,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출산과 관련한 결정의 내용에 따라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적 비용 지원이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자기 몸과 삶의 주체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깊이 고민하며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From 두나)

# { 열린터 24시 }

조화 | 본 상담소 부설 열린터 활동가

## 🌸 나는 오후 6시에 출근한다.

사람들에게 내 근무시간을 얘기하면 “왜 밤에 일해?”, “잠은 언제 자?”, “낮엔 뭐 해?”라고 되묻는다.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쉼터의 특성 때문에 야간에 생활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할 활동가가 필요하다. 열린터 활동가 면접에서 근무시간을 들었을 때 (오후 6시~오전 9시) ‘낮 시간을 잘 이용해 보자’는 마음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낮 시간을 알차고 즐겁게 활용하는 것은 맘처럼 쉽지 않았다. 거기에 밤새 열린터를 지키며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야간 활동가로 1년 6개월을 활동할 수 있었던 열린터의 매력을 함께 나누고 싶다.

## 🌸 열린터에서 나는

저녁을 먹은 뒤 생활인들은 게임을 하자거나 놀아달라고 나를 조른다. 나는 하던 일을 잠시 미루고 마지못해 놀아주는 척 하지만 사실 생활인들과 노는 건 참 재미있는 일이다.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함께 운동을 하면 서로의 관계가 조금 더 이완되는 기분이다. 고민이 있는 생활인은 숙직방 문을 두드리며 상담을 요청한다. 그러면 나는 조용히 듣기도 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대화하기도 한다. 늦은 밤이 되면 학생들은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성인들은 다음날 스케줄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친다. 생활인들에게 열린터는 집이다.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생활하는 열린터는 집처럼 편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치유의 과정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며 일상과 함께 자신의 치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활인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안에 나도 조용하게 녹아서 보탬이 되고 싶다.

### 🌱 작은 고민

밤에 혼자 열린터를 근무를 하다보면, 열린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 혼자 결정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부담이었던 것 같다. 생활인들과 관련된 것은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진중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많았다. 다행인 것은 '스마트한 폰'으로 열린터 활동가들과 실시간으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마음이 편치 않다. 쉬어야 할 활동가들과 밤까지 생활인 이야기를 해야 하니 말이다.)

열린터는 평균 여덟 명의 생활인들이 함께 산다. 그 개개인의 개성이 얼마나 다른지 매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생활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지만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선생님'이라는 역할의 경계를 어디까지 뒤야할지를 잘 몰라 어려웠다. 늘 나를 고민 하게 하는 건 '적정선이 무엇인가'였던 것 같다. 적절한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항상 허덕이는 나를 발견 한다.

살을 맞대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함께 살 때야 좋지만 그렇게 지내다 퇴소하는 생활인이 있으면 그 허전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소하는 생활인 걱정하기도 전에 새롭게 입소하는 생활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헤어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새 만남을 준비하는 것 같아 늘 아쉬움이 남는다.

### 🌱 사건은 밤에 많이 일어난다

야간활동을 막 시작할 때쯤 새벽에 몰래 가출을 했던 생활인이 있었다. 함께 지낸 시간은 일주일 정도였고, 낯선 감정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데 간데없고 문도 다 잠겼는데 증발한 것 마냥 없어진 것이었다.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 시간에 나는 분명 깨어있었는데 살금살금 몰래 나갔던 것이다. 생활인 한 명이 가출한 것에 대한 책임과 그 아이 걱정으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일을 계기로 잠귀가 더 밝아졌다. 이 외에도 생활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가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심장이 더 단단해지고 이성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다. 고마운 녀석들.

### 🌱 남들 일할 때 혼자 놀기

사람들은 종종 낮에 뭐하냐고 묻는다. 취미가 많은 나는 그 날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걸 고른다 (피아노, 펠트공예, 책읽기, 흙피리 불기, 강아지와 산책하기, 잠자기, 사람 만나기, 십자수, 그림그리기, 맛있는 음식 먹기 등). 남들이 일 할 때 혼자 놀 수 있는 건 나에게 큰 위안이다. 낮의 휴식은 밤에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충전의 시간이다. 특히나 혼자서 무언가 할 때 까무러치게 행복할 때가 있다. 낮에 잘 쉬고 저녁에 생활인들과 잘 지내고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행복한 하루인 것이다.

### 🌱 함께 성장하기

비혼을 선택한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혼자 살아갈 인생을 준비한다. 그동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 주변사람들이 모두 결혼하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열린터 활동을 1년 넘게 하면서 독립성이 강해졌다. 늘 집에서만 자던 내가 집 밖에서도 잘 자고, 집의 시설물이나 관리에 관심도 없던 내가 망치질도 잘하게 되었다. 밥도 늘 차려진 것만 먹다가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 밤새 열린터의 안전도 책임지다 보니 점점 용기가 생기는 나를 발견한다. 열린터가 아니었다면 사람과 섞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몰랐을 것이다. 생활인들이 열린터에서 자립을 준비할 때 옆에서 나도 함께 자립을 준비한 것 같다. 열린터는 생활인, 활동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때로는 피곤에 지쳐 잠들기도 하고, 생활인과의 갈등으로 방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생리통에 반쯤 쓰러진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말없이 껴안아주는 생활인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 조화 조화로움을 추구하지만 조화롭지 않은 여자입니다. 지금은 치킨 한 마리와 녹차라떼 한 잔으로 혼자만의 휴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 2013 상반기 열린터 다이어리

### 2월

**내 집을 내가 치운다.  
열린터 부엌을 깨끗하게!!!**

나와 우리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 일요일마다 대청소를 하고 있지만 여럿이 사용하는 공간은 금새 또 지저분해집니다. 냉장고 속 음식도 꺼내어 칸칸이 청소를 하고, 찌든 때가 묻어 있는 양념통과 수저는 소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깔끔하고 쾌적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 3월

**나만의 스티커 만들기**

기성 제품은 가라! 이제는 나만의 스티커 시대. 식구들의 개성이 넘쳐 나는 아이디어 가득한 스티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와중에도 부엉이는 남자친구 얼굴을 그리느라 여념이 없네요.



### 4월

**삶에 의미를 생각하게 한 연극 관람**

2013년 치유회복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연극 "염쟁이 유씨"를 관람했습니다. 소극장에서 모노드라마로 진행되는 연극에 같이 참여해보면서 맘껏 울고 웃으며 삶과 죽음, 일상을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3. 1-6  
Diary

### 5월

**짹 짹 나랑 선생님~**

2년 동안 활동한 나랑의 송별회 날. 식구들이 준비한 노래와 정성 가득 수제 앨범에 몽클하고, 식구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나랑의 맞춤선물에 서로가 감동했습니다. 못내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을 기억하며, 식구들의 기운찬 에너지로 나랑의 건강이 어여 회복되길 기원 합니다^^\*



### 6월

**퀴어 문화축제,  
오늘은 내가 주인공**



춤에 재능이 많은 은수가 객원멤버로 참여한 QcanD(Queer can dance~!)의 멋진 공연이 펼쳐진 퀴어 문화축제. 식구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무대 맨 앞자리를 지켰습니다. 행어 무대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했지만 우리의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은수의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훌륭한 댄스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은수야. 우리 눈엔 너만 보였어!



##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초여름 상담활동가 엠티

차차 | 본 상담소 상담활동가

주중 10시부터 5시까지 전화 상담부스에 전화벨이 울리면 상담자원활동가들은 가장 먼저 성폭력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총 열 여섯 명의 상담자원활동가들은 초기 전화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지원 경로를 안내하기도 하고 전화로 심리 상담도 진행한다. (전화상담 외에 면접 상담만 진행하는 상담활동가도 있다.) 그런데 1년 정도 활동을 하며 지켜보니 이 열 여섯 명의 상담활동가들은 (요일별로 오전과 오후 시간대 별로 활동을 하기에 그런지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례회와 사례연구회에서 모두를 만나지만, 활동한 기간이나 만나온 시간들이 달라서인지 서로를 아는 편차 또한 커보였다. 과연 이번 엠티에서는 상담활동을 벗어난 서로의 얼굴과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약간은 두근거렸다. 게다가 평일에 떠나는 엠티라니!

평일로 잡은 상담활동가 엠티를 막상 맞이하니 일상을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해야 할 것'들의 압박이 차에 오를 때까지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차가 내부 순환로에 진입하고 선선하고 세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부담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상담팀 활동가 유영이 고심하여 선택한 아침고요수목원 근처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펜션이었다. 펜션은 각각 보면 흡사 천장이 높은 모던한 미술관 같은 오묘한 느낌을 뿜었고, 한꺼번에 보면 방공호 같이 생긴 독특한 구조로 보였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마냥 공기도 온도도 도시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서울에서 한두 시간 떨어져 있을 뿐인데,

### 엠티부

## 서로를 안다는 것의 즐거움을 준 '상담소 짝'

모두가 도착하여 짐을 풀고 간단히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나서 상담소 '짝 프로그램'의 막이 올랐다. 진행자인 유영이 정해진 짝끼리 펜션 주변 이곳저곳을 함께 거닐며 한 시간 정도 서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중에 함께 모여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미소 선생님과 짝이 되어 한 시간 동안 이야기 했는데, 신기하게도 딱 하나의 질문 정도만 서로 묻고 대답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다. 사실 미소 선생님과 1년 간 얼굴을 많이 마주치기는 했지만, 서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30년 정도 나이 차이도 나는 터라 더더욱 소통하기를 주저했던 것도 같았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반갑게 와 닿았다.

모두 모여 소개를 나누기 전, 토리 활동가가 숨겨놓은 보물찾기를 진행했다. 못 찾은 사람에게 보물을 나누어주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상은 저녁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드디어 서로의 짝을 모두의 앞에서 소개하는 시간. 우리는 '상담팀답게' 눈을 반짝거리며 집중된 채 서로의 말을 경청했다. 일대일로 밀도 있게 서로를 알아가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소개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예상 외로 상당히 매력 있었다. 타인을 안다는 작업은 상당한 듣기와 질문의 과정과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상대를 알고 싶은 욕구나 아는 과정은 나와서 차이를 인식한다는 차원이기도 했다. 너무도 이질적인 위치와 체화된 역사를 가지지만 왜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를 수 있는지 등을 열어놓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도 상담팀 그 자체가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엠티2부

‘쵸묵쵸묵’하며 이어진 기예에 가까운 젠가

‘상담소 짝’이 끝날 무렵 바비큐, 오징어, 새우, 잣 두부와 잣 막걸리가 준비됐고, 모두 펜션 밖 테라스에 나와 석쇠에 모여 서로 고기를 굽겠다며 집게 쟁탈전이 벌어졌다. 승자는 미연 선생님과 란. 서로 먹여주고 챙겨주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선생님! 저 힐링되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근처에 있던 ‘야옹이’는 냄새를 맡고 속속 근처를 배회하다 ‘야옹이 덕후’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석쇠에 구운 ‘오징어 조공’을 받았다. (배탈은 안 났으려나 모르겠다.^^)

한바탕 정리를 마치고 보물찾기 시상식을 가장한, 각자가 준비해온 작은 선물 교환식을 진행했다. 그런데 마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물은 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은희 선생님이 가져오신 와인, ‘소맥’, 앤 선생님이 가져오신 드라이진 이렇게 세 가지의 술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등장한 미니 젠가로 엠티는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미니 젠가를 하면서 상담 활동가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엿볼 수 있었다. 탈락한 사람들은 계속 맛깔나게 중계 또는 훈수를 두기도 하고, 좀 더 흥미진진하게 게임을 이어나가기 위해 도움을 주기도 했다. 나는 날개 선생님이 나무토막을 꺼내어 위에 올리는 것을 돕는다고 자리를 비켜주다 의자를 ‘드르륵’ 바닥에 대고 끄는 바람에 젠가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매 게임마다 묘기나 기예에 가까운 정도로 높아지는 젠가를 보며, 긴장감과 흥분감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게임의 위너는 은근한 카리스마를 뽐냈던 상담활동가 미연 선생님이었다.

이어지는 술자리에서는 내가 종종 즐겨하는 심리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귀신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신이 겪은 폭력 경험이나 성폭력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청과 질문들이 난무하며 이런저런 말들은 계속됐고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거의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담소 짝’에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나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이런 모습에서 나는 각자의 속에 서로의 자리가 생긴 듯 한 인상을 받았다.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 여러 나라를 여행한 기분이었달 까.

엠티3부

평생 봤던 식물보다 더 많은 식물들과 만난 아침 산책



다음날, 함께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먹고 근처 아침고요 수목원으로 향했다. 사실 나는 이 공간에 대한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로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인지 너무 낯설면서도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도 같다. 이날 아침 햇살은 뜨거웠지만 그만큼 형형색색의 꽃과 식물들이 만발했다. 은희 선생님은 온갖 식물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실 만큼 입담을 발휘하셨다. 나는 아마 그곳에서 평생 봤던 식물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햇살을 오래 받다보니, 모두 너무 더운 탓에 한옥 건물 대청마루에 누워 잠시 휴식을 갖고, 가평에서 유명하다는 막국수를 먹으며 서로 엠티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모두 훈훈한 평가를 마치고 아쉬운 마음에 잣막걸리로 건배를 하며 엠티의 막은 내렸다.

서울에 오니 3-4도 높은 듯 한 기온과 매캐한 공기가 느껴졌다. 마치 꿈에서 깬 듯 한 기분이랄까. 그만큼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표현 외에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좋았던가보다.

어설록 엠티 스케치를 마치며,  
함께하지 못한 상담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엠티에서 마주친 상담활동가 선생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올해에도 상담소의 상담활동은 유쾌하고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이어져 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꺾물꺾물 올라오다.

※ 차차 ‘뭐하시는 분이예요’라고 물으면 요즘엔 저를 양아치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 

상담소에는 '요리 좀 한다'는 활동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 몇 년 간 상담소의 점심 밥상은 유명 레스토랑 못지않게 화려했지요. 그런데 최근 상담소가 점심 도시락을 주문해 먹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활동가들의 요리 실력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요리가 그리운 활동가들은 활동가들이 요리 실력을 겨루는 <마스터셰프 상담소>를 개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마스터셰프 상담소>가 펼쳐집니다! 과연 상담소의 마스터셰프는 누구일까요?

1

오늘 <마스터셰프 상담소>에 도전할 활동가는 반성폭력운동보다 요리가 좋다는 요리 활동가와 한식조리사 자격증 준비생! 란 활동가입니다! 두 분 다 상담소에서는 요리분야와 먹기분야의 실력자들인데요! 과연 누가 우승할지 기대됩니다!



토리, 란

2

드디어 <마스터셰프 상담소>의 주제와 재료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제는 '오후 4시 업무에 지친 활동가들을 위한 영양 간식'이네요! 이를 위한 기보 재료는 과연 뭘까요? 그럼 미스터리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주재료 참치

3

네! 이번 <마스터셰프 상담소>의 주재료는 국민반찬 참치 동조림입니다! 과연 참치 동조림을 활용하여 도전자들이 어떤 요리를 해 낼까요! 이어서 두 도전자들이 상담소의 팹트리 <합정마트>로 이동해서 재료를 구합니다. 재료는 5000원 이하로 20분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두 도전자들이 바쁘게 재료를 찾아다니는군요!



합정마트

4

도전자들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쫄고 더운 상담소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도전 중간 중간 업무 전화도 받아가며 칩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리중

5

상담소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과연 두 도전자가 참치를 활용한 영양 간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약속된 시간이 다되어갑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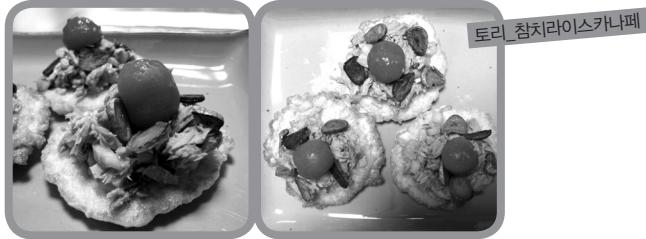


짜각 짜각 시간은 흐르고

네! 너! 기! 기!! 솔 폐세요! 드디어 <마스터셰프 상담소> 도전이 끝났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완성되었을까요? 두근두근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상담소 활동가 심사위원단들의 시식과 심사가 있겠습니다!

6

첫 번째 요리 도전자의 요리는 '토리 참치라이스카나페'입니다.  
 점심에 먹고 남은 밥으로 전을 만들고  
 참치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올렸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토리 참치라이스카나페

네, 심사위원들은 남은 밥을 활용한 점에 큰 점수를 주었네요.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밥전에 상큼한 참치 샐러드가 잘 어울린다는 평입니다!  
 플레이팅도 수준급이네요!

7

두 번째 요리 도전자의 요리는 '란 참치 감자 크로켓'입니다.  
 감자와 참치, 상담소 냉동실에 있던 오곡 미숫가루를 섞어 속을 만들고  
 크로켓으로 튀겨 냈는데요.  
 새싹 샐러드와 블루베리 음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란 참치 감자 크로켓

네 심사위원들은 블루베리 음료에 들어간 블루베리가  
 상담소 냉동고에 있던 블루베리 잼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영양 가득한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낸  
 요리 도전자가 대단하다는 평입니다!

8

그럼 8명의 활동가 심사위원단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과연 누가 <마스터셰프 상담소>의 우승자가 될까요?  
 우승자에게는 놀라운 상품이,  
 우승하지 못한 도전자는 앞치마를 벗고  
 상담소 부엌을 떠나게 됩니다!



초목초목

짜잔! 이번 <마스터셰프 상담소>의 우승자는  
 바로 요리 활동가의 '토리 참치라이스카나페'입니다!! 박빙의 승부였다고 하네요.  
 요리 활동가 축하합니다!  
 우승하신 요리 활동가에게는 <열린터 숙지 대신 쿠폰>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바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9

그럼 아쉬워지만 요리 활동가는 앞치마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 활동가도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2등을 한 요리 활동가에게도  
 <아침 청소 | 회 면제 쿠폰>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요리 활동가 축하해요!

두 요리 활동가들 덕분에 상담소 요리 활동가들이  
 지친 오후에 위기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리 활동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마스터셰프 상담소> 시즌2에서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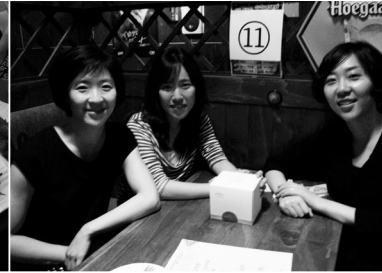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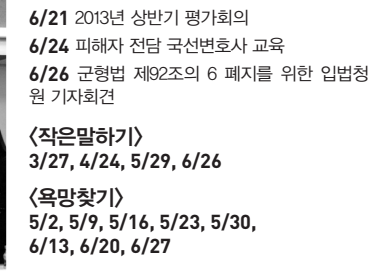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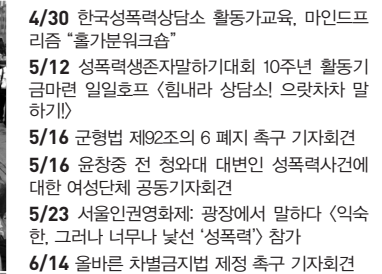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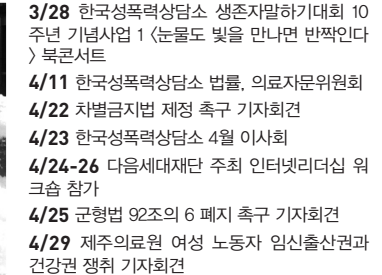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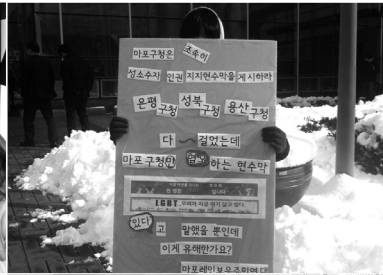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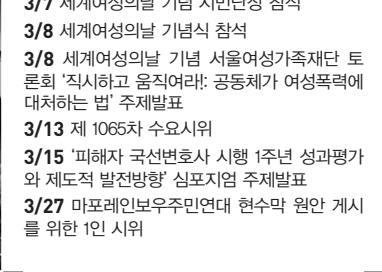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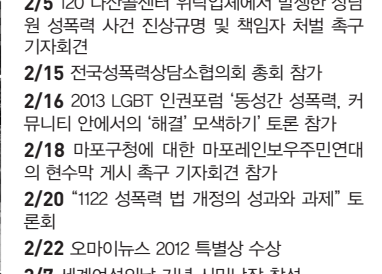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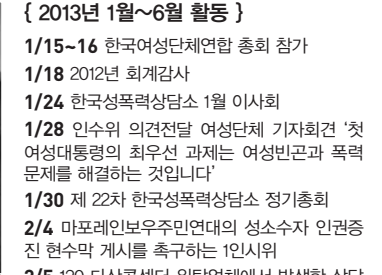
M, TTT



@@

**{ 2013년 1월~6월 활동 }**

- 1/15~16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참가
- 1/18 2012년 회계감사
- 1/24 한국성폭력상담소 1월 이사회
- 1/28 인수위 의견전달 여성단체 기자회견 '첫 여성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빈곤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1/30 제 22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2/4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성소수자 인권증진 현수막 게시를 촉구하는 1인시위
- 2/5 120 다산콜센터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상담원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2/1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총회 참가
- 2/16 2013 LGBT 인권포럼 '동성간 성폭력, 커뮤니티 안에서의 '해결' 모색하기' 토론 참가
- 2/18 마포구청에 대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촉구 기자회견 참가
- 2/20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 2/22 오마이뉴스 2012 특별상 수상
- 3/7 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난장 참석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참석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서울여성가족재단 토론회 '직시하고 움직여라: 공동체가 여성폭력에 대처하는 법' 주제발표
- 3/13 제 1065차 수요시위
- 3/15 '피해자 국선번호사 시행 1주년 성과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주제발표
- 3/27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현수막 원안 게시를 위한 1인 시위



## NGO의 든든한 파트너, 비영리 공익 재단

두나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다양한 활동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까요?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는 비영리 단체인 상담소의 가장 큰 재원은 후원자 여러분의 후원금입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의 임금 등 상담소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반성폭력 활동들의 많은 부분을 후원 회원들의 후원금과 일일호프, 바자회 등과 같은 모금활동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이 상담소 운영의 버팀목이지요.

상담소에는 이런 후원자 분들과 더불어 상담소의 반성폭력 활동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드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후원자, 바로 '비영리 공익 재단'입니다.

### 비영리 공익 재단이란?

비영리 공익 재단이란 어떤 곳이고, 상담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비영리 공익 재단은 일반적으로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재단을 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이나 한국여성재단, 환경재단, 인권재단 사람 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 재단입니다.

비영리 공익 재단들은 각자의 활동 목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재단(womenfund.or.kr)은 여성의 인권 보장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 개인과 여성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도 오랫동안 한국여성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드는 활동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은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쉼'을 위한 프로젝트나 활동가를 위한 건강권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2010년에는 상담소도 지원을 받아 활동가들이 제주도에서 폭 쉬며 다음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여성재단은 여성단체들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아름다운재단(BeautifulFund.org)은 시민의 인식과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다양한 사업 중에는 '변화의 시나리오'라는 멋진 이름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민참여와 소통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익단체의 공익 활동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도 지난 3년간 '변화의 시나리오'를 통해 시민교육프로그램 '성폭력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담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러한 배분 사업 뿐 아니라 기부자들이 기부 처를 지정할 수 있는 '나만의 기금'이나, 가족기금, 유산기금, 커뮤니티 기금 등 다양한 맞춤형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기부문화연구소를 운영하여 우리사회에 기부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인권재단 사람

인권재단 사람(hrcenter.or.kr)은 설립 이래로 인권활동가들의 친근한 벗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인권단체들의 모금과 배분사업을 지원하고, 문화행사와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인권감수성 확산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을 설립하여 시민과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에 대해서 떠들고, 노래하고, 공부하고, 인권을 꿈꾸며 인권의 가치를 확장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상담소도 '인권중심 사람'에서 함께 할 활동들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이 외에도 환경재단, 5·18기념재단 등 다양한 비영리 공익재단들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 공익 재단을 통해 후원하려면

공익활동을 위해 후원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후원자 본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찾아 직접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분야에 후원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관련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을 찾아 후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각의 재단들은 기부금을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기금운영의 적절성이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고 (물론 개별 시민사회단체들도 당연히 투명하게 기부금을 운영합니다!), 기부자 관리 및 혜택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이나 여력이 없어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비영리 공익재단을 통한 시민들의 후원활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소의 경우에도 직접 마련하기 어려운 큰 기금을 비영리 공익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비영리 주요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담소는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시민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 재단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선 관심 분야의 활동을 지원

하는 재단을 찾아 후원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원하는 기부금 사용처가 있다면 재단과 상의해서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 재단을 통한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후원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줍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에 함께해주세요! 상담소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두나 여름을 좋아합니다. 뽕송뽕송한 여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지효, 이종국, 이종근, 이종희, 이준범, 이준형, 이지민, 이지선, 이지연, 이지연,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진아, 이찬희, 이창윤, 이충원, 이태숙, 이한종태, 이해사랑, 이향심, 이향화, 이현숙, 이현희, 이해경, 이해일, 이해정, 이호균,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화자, 이희경, 이희수, 이희숙,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선자, 임수연, 임수영, 임수환, 임유정, 임자영, 임주현, 임주희, 임지숙, 임치선, 임치순, 임홍섭, 임희운, 장규형, 장다혜, 장민경, 장성희, 장영아, 장영애,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인중, 장재운, 장정희, 장종순, 장진, 장혁인, 장혜란, 장효정, 재단법인 동천,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보임, 전승기,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유경,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해영, 전해영, 정경아, 정경애, 정광, 정교화, 정구민, 정귀원, 정다미,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문영, 정민이, 정보람,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수연, 정숙경, 정순희, 정슬아,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윤경, 정은선, 정인호, 정정기,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민, 정지숙, 정지현, 정지훈, 정진옥, 정진화, 정창수, 정혜람, 정현, 정현주,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올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세영, 조소연, 조영선, 조윤경, 조윤주, 조은샘, 조은숙, 조은영, 조은희, 조인섭, 조일, 조일래, 조재욱, 조정은, 조중선, 조지혜, 조진희, 조현아, 조혜민, 존타클덤, 주리아,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순, 지현우, 진새록,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인순,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현수, 천정환,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광옥, 최대연, 최대용, 최동석, 최란,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선구, 최신아,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신혜, 최아람, 최연순, 최영애, 최영지,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용범, 최원일, 최유미, 최유진, 최윤미,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은영, 최정림, 최정은, 최정은, 최정희, 최정희, 최지나, 최지너, 최지영, 최진안, 최효선, 추민주, 추정희, 춘옥, 코니, 토란어린이집,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하다영,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진옥, 한경아, 한계영, 한국아마자키마작(주),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석구,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영희, 한영미, 한윤정, 한전부녀회, 한채윤, 한희정, 함경진,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은주, 허정연, 허정익, 허정익, 허효정, 현정순, 홍남영,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숙기,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동하, 황미선, 황성기, 황숙희, 황순경, 황은순, 황재호, 황정민, 황정진, 황주영, 황지성, 황지영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와 열림터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덕,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하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숙, 권진구, 권영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민정, 김삼화, 김선영, 김소연, 김예지, 김옥란, 김은중, 김재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나인선,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빗,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인필, 박지만(주) EG),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시연숙, 신동언, 신상호, 신혜경, 심공채, 안백린, 안지혜, 안재영,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희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성순,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정, 이정숙, 이해경, 이해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주요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희재, 조선혜, 조영미, 조영황, 조인석, 조일래, 조재욱, 주관수, 채영수, 천수민,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엘테크,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순아